

“실패가 수미산만 해야 큰 성공 오는 법”

가야산 해인사는 그 도량이 넓고도 깊어 산중 곳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가슴을 울려 퍼지게 적신다. 밝은 날 눈을 들어 산을 우러르면 산자락마다 기암괴석이 우뚝하고 굽이쳐 흐르는 홍류동 계곡 또한 푸르름이 넘쳐난다.

그런 해인사로, 그것도 큰 어른이신 해암(海菴) 큰스님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요사에 집을 풀고 가야산의 밤을 맞으며, 한 하늘 아래 공존하는 터전이 어떻게 다르고 각별한지를 새삼 느낀다.

새벽 햇살이 돌담을 기어오르는 퇴설당(堆雪堂)에서 해암 큰스님을 보았다. 연꽃이 새겨진 앉은뱅이 나무 탁상을 앞에 두고 단아한 차림새로 염주를 돌리고 계셨다. 큰스님의 첫 인상은 들은 대로 군더더기가 없는 육신과 골기가 또렷이 드러난 다소 갸름한 체형인데 안경 너머로 눈빛이 빛난다. 여명 속에 감도는 선미(禪味)의 기운이 방 안 가득하다.

출가 인연사부터 여쭙었다. “누가 절에 가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요,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자 온 것이지요. 일본에서 책을 보다 보니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넘어 가질 않아 바로 이 해인사로 출가했어.”

처음부터 남의 신세를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의 힘을 빌려서 공부하면 스스로 깨우침만 못하니 그리 마음을 먹었지요. 머리 깎고 가사 입고 행세하는 것이 스님이 아닌 만큼, 형식에 그치는 일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출가사문이 되어 꼭 지켜야 할 스스로의 계율을 세 가지로 삼았는데 첫째, 공부한 후라도 상좌 안 들린다. 둘째, 절집의 소임은 맡지 않는다. 셋째, 드러



가까이서 뵈 큰스님

해 암 스님

추모특집 이호신의 글과 그림으로

나지 않게 숨어서 공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뜻대로 한 게 없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니 스님께서는 지금 조계종단 원로회의 의장과 해인총림 방장을 맡고 있다.

“과거 부의장 때 두 번이나 사의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다 조계종 분규 사태 이후 종단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맡게 되었고, 해인사 방장직은 책임자가 나온다면 한시라도 그만 둘

생각입니다. 내가 방장을 맡은 후 계율은 더 엄격했었어요.”

엄한 어른이 어디 절집에서만 요구되는 존재인가. 오히려 세상이야말로 어느 때 보다 사표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 시대의 고통에 대한 큰스님의 처방전을 청해 본다.

“참된 수행자란 인천(人天)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소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권력 앞에서든 바른 말

“수행자는 人天의 지도자 세상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소명지니고 이땅에 태어난 것”

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인제 양성이 시급한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이를 살뜰 잘 모르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제구실을 하려면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마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태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었다. 큰스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 살 먹은 아이도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하여 일어날진대 지레 기운을 빼고 흥분만 해서 안 되지요. 두고 보세요. 가스 폭발, 다리 붓고보다 더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노태우 씨가 백번 잘못했지만 국민들은 이 기회에 크게 깨쳐야 합니다.”

어찌해서 그럴까. 사문 당혹스럽기만 하



○해인총림 6대 방장으로 퇴설당에 주석하시실 때의 해암스님.

는 수도승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했기에 자급자족과 탁발로써 부처님의 길을 따랐지요. 이전의 무우마기 장삼이 오늘날 가사로 바뀐 것도 그 때 60년을 만들어 나온 결과입니다. 탁발 공양은 물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물레 담아주고 오기도 했지요.”

너무도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이 생생한 그림이 되어 머릿속을 흐른다. 과거는 무조건 아름답게 보려는 회고 취향 때문일까. 아니면 현실이 하도 불뿔이 없어서일까. 과연 10년이 고 20년 후의 한국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조계종 분규 사태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선, 장좌불와, 묵언만 하는 스님인 줄 알았더니 이처럼 떨치고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때 기자들이 물

“ 사람구실 하려면 자신의 처지·분수 바로 알아야 ”

려와 종단의 추락과 타락을 어찌 할 것이냐고 물기도 하더군요. 나는 한 마디로 무엇이 추락이고 타락이나. 이것이 앞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징조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수미산만은 해야 큰 성공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성인 또한 모두 예외가 아니었던 만큼 부끄러워할 것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어요.”

이 말씀을 끝으로 겨우 몇 장의 밑그림을 들고 물러나오자 퇴설당 프락은 이미 환하게 공명전치로 밝아있었다. 몇해 전에는 성철 스님이 이 곳에서 주석하시다가 법체로서 이승길을 떠셨는데 뒤이어 해암 스님이 법업을 쏟아내고 계신다. 사람은 가도 인연은 끊음이 없는 법이라더니. 가야산 해인사의 도량은 이렇듯 물처럼 흘러가는 것일까.

벽계정승의 홍류동 계곡을 따라가자 길 옆 너럭바위에 새겨놓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초서가 물 흐르듯 영겁의 세월 속에 낫달로 떠 있다.

이 글은 화가 이호신 씨가 해암 큰스님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 1996년 11월 18일 친견한 때 나는 얘기를 스님의 원적 소식을 접하고 4월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 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복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현머리를 경계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임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특허

“BBS 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음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추동복 : 촉감이 매우 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리움을 더한 장삼.
◆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 타입	구 분	판 매 가
추 동 복	저고리 비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풍 방	남·여 120,000
누 비	상 하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 삼 (조계종 특고종)	남·여	220,000
승 가 방	중	28,000
	소	23,000
미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기 원 섬 유